
 금융위원회	<h1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보 도 자 료</h1>		 금융감독원
책 임 자	금융위 자산운용과장 김 기 한(02-2100-2660) 금감원 연금금융실장 권 오 상(02-3145-5180)	담 당 자	이 선 희 사무관 (02-2100-2673) 윤 중 욱 팀 장 (02-3145-5190)

제 목 : 「퇴직연금감독규정」 개정안 금융위 의결

1 개정배경

- 해외지수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종할 수 있는 **합성ETF***를 퇴직연금 자산의 투자대상에 포함하여 투자다변화 및 수익률을 제고하고자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안(9.21(수)) 의결

* ETF의 낮은 수수료 체계, 상장펀드로서 검증된 상품, 해외자산의 효율적 투자 등 다양한 장점이 복합된 상품

※ 「ETF시장 발전방안」(‘15.10월 발표) 후속조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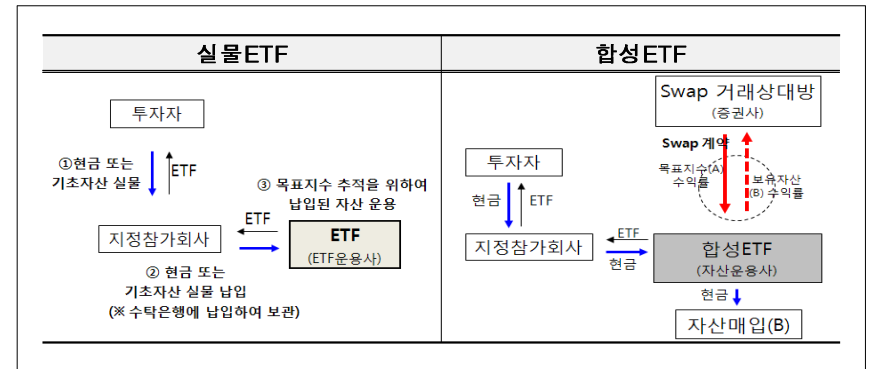
<합성ETF 개념 및 특징>

- **(개념)** ETF에서 주식, 채권 등 기초자산을 직접 편입*하는 대신, 기초자산을 편입하는 효과를 발생시키는 스왑(Swap) 등 장외파생계약을 체결하여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

* 일반적인 실물ETF는 주식, 채권 등 기초자산을 직접 편입하여 지수 추종

- **(특징)** 해외 기초자산을 국내 펀드에서 직접 편입할 경우, 시간·공간적 제약으로 인한 비용 증가 등 지수추종에 어려움이 있으므로, 합성ETF는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장외파생계약을 체결하여 운용*

* 국내 상장된 합성ETF는 장외파생상품(스왑거래)을 주된 운용방법으로 활용



2 주요내용

- **(현행)** 퇴직연금은 실물ETF를 통해 국내 주식·채권에 대한 투자가 가능하지만, 파생투자 규제*로 합성ETF 투자가 어려워 ETF를 통한 해외투자에 제약이 발생

* 퇴직연금은 파생 위험평가액이 40%를 초과하는 펀드 투자금지

※ 참고

- 거래소는 ETF를 합성ETF와 실물ETF로 구분('16.7.31기준 통계)
- 실물 ETF의 82.1%가 국내 주식·채권형이며, 이 중 퇴직연금에서 투자 가능한 실물 운용형은 72.4%
- 합성ETF(35개)의 기초자산은 모두 해외자산

- 합성ETF는 실질적으로 해외자산 가격 및 지수를 추종함으로써 실물자산 투자와 동일한 효과가 발생*하고, 투자자 보호**를 강화한 한편,

* 장외파생상품을 활용하지만 실제 손익은 기초자산을 매입한 것과 동일 (인버스·레버리지 제외)

** 거래상대방의 자격 요건, 담보 제공 의무 등을 엄격히 규정

- 효율적인 해외자산 투자*를 통해 퇴직자산 운용 다변화와 수익률 제고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활용이 불가능

* 해외 실물 편입에 따른 비용 절감과 지리적 제약 극복

□ **(개선)** 합성ETF를 퇴직연금에서 편입할 수 있도록 합성ETF에 대한 파생상품 매매위험평가액 비중을 40%→100% 상향조정 (안 제9조제1항제2호마목, 동조 동항 제3호가목)

○ **(기초자산)** 해외자산 투자 효율화 취지에 부합하도록 증권 기초 자산에 한정하여 허용*

* 부동산 펀드 투자 금지 등 퇴직연금의 펀드투자 규제 취지에 부합하도록 증권에 한정

○ **(레버리지·인버스)** 기초자산 투자 이외에 파생 효과가 있어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높은 레버리지, 인버스는 투자대상에서 제외

⇒ 레버리지·인버스를 제외하고 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한 합성 ETF를 퇴직연금에서 투자 가능

<참고 : 퇴직연금 투자허용 범위>

구분	현 행	→	개 선
투자 가능 대상	실물 ETF 중 위험평가액 40% 이하(일반형)	↕	실물 ETF 중 위험평가액 40% 이하(일반형)
	-		합성 ETF - 증권 기초자산 - 1:1 지수 추종형
투자 제외 대상	실물 ETF 중 위험평가액 40% 초과 (레버리지, 인버스 등)	↕	실물 ETF 중 위험평가액 40% 초과 (레버리지, 인버스 등)
	합성 ETF 전체		합성 ETF - 증권 이외 기초자산 - 레버리지, 인버스

3 향후일정

□ 관보 게재 등을 통해 고시한 날부터 시행